

#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시민참여 숙의형’ 방식 확정

무작위 선발 시민배심원 20명  
시나리오 워크숍서 최종 선정  
21일 2차 회의서 의제설정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관련 공론화 방식이 시민참여 숙의형 공론화조사로 최종 확정됐다.

18일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공론화위는 전날 오후 3~6시 소속 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회의를 갖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관련 숙의형 조사를 벤치마킹한 시민참여 숙의형 공론화조사를 공론화 방식으로 최종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날 신고리 5·6호기 방식과 흡사한 ‘공론화조사’를 비롯,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에 채택한 ‘시나리오 워크숍’, 무작위 선발된 20명의 시민들이 배심원단을 구성해 전문가와 증언을 듣고 해결책을 토론했다는 ‘시민배심원제’, 시민 패널을 중심으로 한 시민포럼 형식의 ‘합의 회의’ 등 4가지 주요 방식을 놓고 논의한 결과 공론화조사 방식을 최종 선택했다.

시나리오 워크숍은 시민과 공무원, 기업, 전문가 등 그룹별로 4~6명의 대표자

가 참석해 집단 대표성을 유지할 수 있고, 시민배심원제는 구속력은 없지만 특정 정책에 대한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합의 회의는 공공성을 염두에 둔 숙의 과정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도시철도 공론화의 특성과 신분 노출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시민참여 숙의조사로 결정됐다.

위원회는 공론화 방식이라는 첫 단추를 꿰어 이어 오는 21일 2차 회의를 갖고 의제설정에 머리를 맞출 예정이다. 2호선 건설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건설한다면 도시철도를 저속도 지하철로 할지, 노면전차인 트램(TRAM)이나 간선급행버스체계 BRT(Bus Rapid Transit) 등 다른 대안을 택할지 기본적인 의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최영태 위원장은 “의제는 공론화위원회 통해 결정하겠지만 가급적 시민들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단순명료하게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제가 정해지면 10월 중순께 일반 시민들(최대 5000명 예상)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 2호선 건설 찬반 의견과 숙의형조사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은 뒤 10월20일 전후로 지역별·연령별·성별로 안내된

300~350명 규모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이후 2주일 동안 의제에 대한 숙의 과정과 30여 개 분임토론, 찬반 전문가 패널과 참여자 전원을 포함한 전체 토론회, 1박2일 합숙을 거쳐 11월10일까지 최종 권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신고리원전 5·6호기 숙의형조사와 큰 틀에서 같지만 신고리 방식이 전국을 대상으로 450명의 시민참여단을 선정한 것과 달리 도시철도 2호선은 광주로 국한해 선정한 점이 차이점이다.

한편 공론화위는 최영태 광주시 시민권익위원장을 위원장으로 7명의 중립적 인사로 구성됐다. 법률, 조사통계, 소통, 갈등관리 등 4개 분과로 나눠 박강희 변호사와 흥기학 동신대 교수, 김기태 호남대 교수, 김은희 전남대 교수, 김미경 조선대 교수,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 소장 등이 참여했다.

4주 동안의 준비 기간에는 공론화 절차나 숙의조사 방식 등에 대한 설계를 비롯, 시민사회·시의회의와의 협의, 전문가 자문회의, 용역업체 선정, 시민 홍보 등이 진행된다.

/광주=오종일 기자 raser506@metroseoul.co.kr



아프리카 아시아 난민교육후원회(ADRF)가 지난 17일 홍보대사 위촉식을 진행했다.

## 난민교육후원회 홍보대사 9명 위촉

아프리카 아시아 난민교육후원회(ADRF, 회장 권이중)는 지난 17일 용산구 효창공영역 인근 ADRF 사무실에서 홍보대사 위촉식을 진행했다.

ADRF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빈곤 아이들이 다양하고 적절한 교육지원을 통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그 꿈을 향해 마음껏 달려갈 수 있도록 학교교육과 인성교육을 지원하는 단체다.

ADRF 홍보대사는 ‘교육이 희망(HOPE=EDUCATION)’이라는 슬로건에 공감해 교육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더 많은 사람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널리 알리는 회원을 말한다.

이날 ADRF 홍보대사에는 배우 겸 가수 노현희, 영화배우 이설구, 성아연, 이소망, 연극배우 김동영, 푸드컨설턴트 강

지영, 메이크업 아티스트 겸 서양화가 장소영, 영화감독 한명구, 이연종 등 9명이 위촉됐다.

위촉식 후 홍보대사들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남기는 시간을 가졌다. 노현희 홍보대사는 “아프리카 아시아 전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후원을 할 수 있어 영광”이라며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권이중 회장은 “ADRF는 해외 빈곤 아이들에게 교육 운동을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계 시민을 양성하기 위해 일하고 있다”며 “새로 위촉된 홍보대사들도 함께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가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인천=최영주 기자 choiyj@

# 이재명 “골목상권 살아야 나라경제 산다”

대형유통 규제 등 상권살리기 나서  
전통시장 실태점검·상인과 간담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골목상권이 살아야 나라경제가 산다”며 대형유통제벌에 대한 규제, 지역화폐 발행, 상인들의 자주적 조직화, 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등을 통해 골목상권 살리기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17일 오후 추석을 맞아 수원 영동시장과 못골종합시장을 방문, 최근 시장 경기와 명절 장바구니 물가 실태를 점검한 뒤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김봉균·황수영 의원과 이한규 수원시 1부시장, 이충환 경기도 상인연합회장, 최극렬 수원지동시장 상인회장, 조건주 안양호계시장 회장, 김국남 성남시 상인연합회장 등을 비롯한 경기남부 권역 상인 80여명이 함께했다.

이 지사는 이날 “과거보다 기술도 발전했고 자본도 더 많아졌는데 왜 사람들은 더 힘겹게 살아갈까에 대해 고민해 보니



17일 이재명 지사가 전통시장 방문을 방문하고 있다.

/경기도북부청

불공평함과 격차에 원인이 있었다”며 “재벌을 중심으로 한 소수 기득권자보다 중소기업, 골목상권이 살아야 고용이 늘고 경제도 산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특히 기존 상권을 망가뜨리는 대형 유통제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데 힘쓰겠다고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규제 강화, 시군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의 도입·확대,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전담할 시장

상권진흥원 설립 등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민선7기 골목상권 5대 공약’으로 ▲경기도 전역 지역화폐 도입·확대 ▲(가칭)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설립 ▲경기도형 상권 활성화구역 지정 ▲상생발전형 공유마켓 및 골목형 시장 중점 육성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및 경영자금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도=고성철 기자 ksc@

## 광주 북구 하반기 특별교부세 20억 추가확보

광주시 북구가 2018년도 하반기 특별교부세 20억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지역 현안사업과 재난안전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18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로부터 북구 지역 현안사업 2개, 재난안전사업 2개 등 총 4개 사업 2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교부된 사업은 말바우 주차환경 개선 7억원, 산업단지 노후 도로포장 및 보도정비 5억원, 용산교 보수·보강 5억원, 중흥3거리 주변 하수암거 보수 3억원 등이다.

주차 공간 부족으로 만성적인 교통 혼잡을 겪고 있는 말바우시장 주차환경 개선에 7억 원을 투입해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준공된 지 15~35년이 경과된 본촌 및 첨단산업단지 내 노후 도로 파손·균열 등 도로환경 정비로 산단 내 입주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정주환경을 개선한다.

1990년도 준공되어 교량 시설물 노후화·부식 등 내구성 저하로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은 용전동 용산교를 보수·보강하고, 집중호우시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침수피해와 싱크홀 발생 우려가 높은 중흥3거리 주변 하수암거에 대한 집중 정비로 재난위험 사전예방에 나선다.

/광주 북구=봉체영 기자 bcy2020@

## 경기도 심야버스 5개노선 확대

밤 11시부터 운행... 총 68개 노선

경기도는 늦은 밤 시민의 발이 되어줄 ‘심야버스’ 노선을 연말까지 기존 63개에서 68개로 5개 노선을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심야버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 편의를 위해 출발지점 기준 오후 11시 이후에도 운행하는 버스다.

경기도는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현재 24개 업체가 63개 노선을 운행, 15개 시·군과 서울 주요 도심을 연결한다.

경기도는 이달 중에 시·군과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한 뒤 막차 운송 수익률과 이용객 수 등을 토대로 최종 운행노선을 확정할 방침이다.

선정기준은 오후 11시 이후 첫차 운행 전까지 2개 시·도(시·군) 이상을 운행하는 시내버스(광역급행버스 제외), 표준

운송원가 대비 막차 교통카드 수익금 비율이 30% 이상인 노선, 환승 거점 및 혼잡을 등이다. 최종 선정된 노선은 심야 운행에 따른 운행결손금의 50%를 도비로 지원한다. 오전 3시 이후에도 운행하는 노선은 첫차 운행 전까지 운행결손금의 80%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5개 노선 확대도 13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다음 달부터 심야버스 신규노선에 대한 지원을 시작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2022년까지 매년 5개 노선씩 심야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 심야버스는 수도권 생활권 확대와 생활패턴 다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심야 이동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교통수단”이라며 “저렴하고 안전한다는 점에서 시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의정부=고성철 기자

## 영광 현대화 굴비공동덕장 건립 ‘청신호’

2019 전남 국비 2억 지원 받을 듯

영광군은 위생적이고 현대화된 굴비공동덕장 건립사업을 추진하고자 국비 확보 활동을 전개한 결과 2019년도 사업비 반영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금까지 범섬 지역에서 가가호호 건조되고 있는 굴비는 언제나 위생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있었지만 이번 국비 확보로 그동안의 걱정을 한순간에 불식시킬 것으로 보인다.

18일 군에 따르면 2019년 신규 사업으로 전라남도에 국비 2억 원 지원을 건의하였으며 도에서 국비 지원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범섬 진내지구 ‘수산물 공동가공센터’ 내에 들어설 예정인 공동덕장은 채광시설, 비가림, 방충망, 건조대 등 현대적인 위생시설을 갖춘 계획이며 굴비를 건조



할 때 오염물질 노출을 최대한 줄이고 천연 해풍 상태에서 많은 양의 굴비를 현대식으로 위생적으로 건조하기 위한 시설물이다.

굴비공동덕장이 완성되면 굴비 본고장 이미지 제고와 볼거리가 더 늘어남에 따라 관광객 유치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남 영광=은하수 기자 ehs1203@